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록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한해가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았지만 과거는 흘러간 돌이기에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주변 상황 속에서 고원한 이상보다 현실을 직면하고 살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아합장>>166경에서 167경까지 『賢善一夜의 辱』라는 찬가가 있다. 매우 널리 애송된 것으로 보이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를 돌이키지 말고, 미래를 염원하지 말라/ 지난 일은 이미 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밤을 그곳에서 관찰하고 동요없이 매이 남김없이 이해하여 뒤아 익혀라/ 다만 오늘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리오/ 진실로 저 죽음을 대관하지 않을지 말할 수 없도나/ 이와 같이 살며, 열심히 밤낮으로 태만하지 않는 자/ 사람들은 그를 일러 하루 밤의 어린 사람, 적자정자(寂靜者, 적

제환인이 발리바부자 아수라와 함께 문안 인사를 했다. 그때 아수라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며/ 법과 진리로 얻게 되어 안혹하며 쾌락을 얻으리라.” 이에 석제환인도 계승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사업 또한 성취할 것이니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상의 계승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자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 따르나니/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탐 쉼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룩할 때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하리라.”

석제환인이나 아수라나 모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참아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사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쉽게 살고자 하는 것도 인간만이 속성 중의 하나인가에 범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욕망에 충실하기에 인간일 수 있다. 아니 욕망이 있기에 살아 있는 인간인

꾸준히 노력·인내해야 원 이뤄

“성취하려면 먼저 인욕 배우라”

묵자(默者)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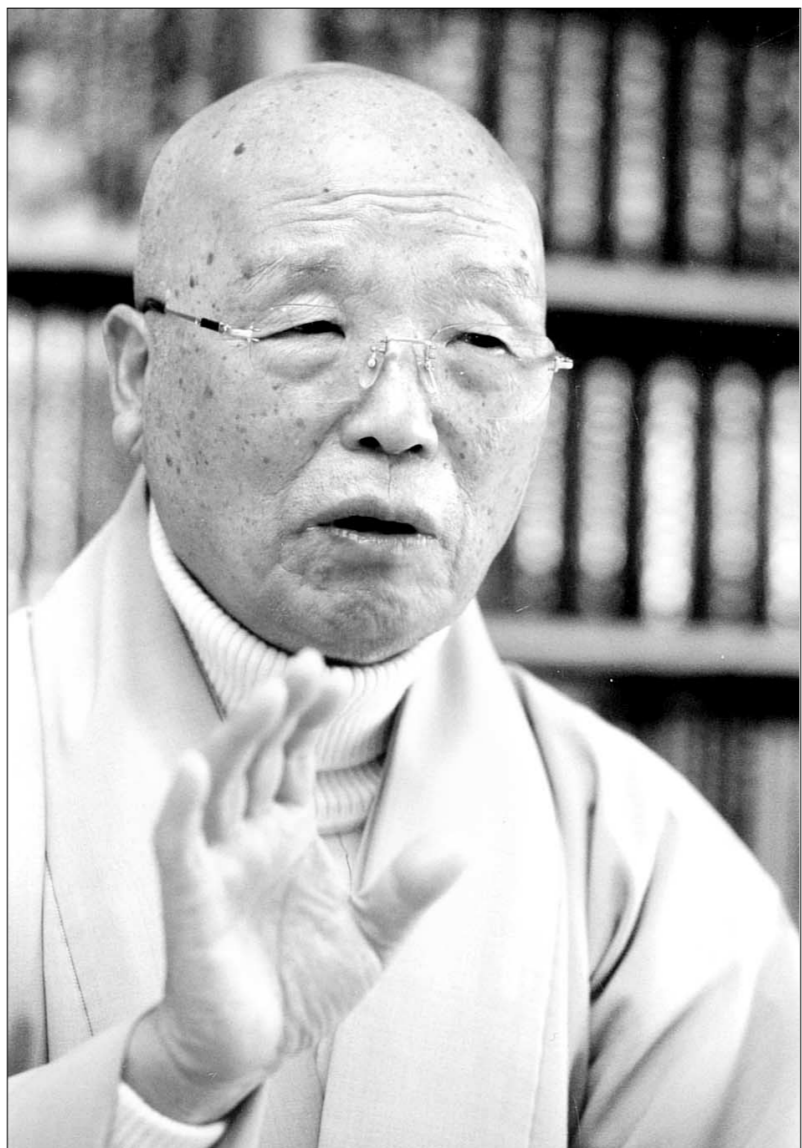
이 노래는 결핍 없이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그와 같아야 하겠기에 새삼 이상의 노래를 소개했다.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필자 역시 간절하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법하고 계신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매년 정초만 되면 필자를 위해 부적을 사다 주는 누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실용적으로 다른 데 쓰라고 핀잔했던 일이다. 비단 우리 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초만 되면 신수점을 보거나 토정비결을 보며 일년을 점치고 한다. 모두 무탈하게 일년을 보내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은 많았던 것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시실 때 석

것이다. 그러나 노력과 인내가 있기에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될 수 있다. 험난한 세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노력과 인내인 것이다. <<잡아합장>>제22, 603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신다. “어떻게 흐르는 물을 건너고/ 어떻게 넓은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괴로움을 버리고/ 어떻게 맑고 깨끗해지나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며 /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세파를 건너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인간의 소망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다.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 정진으로 넓은 인생사를 극복하고 고통과 불안을 던져버리라 말한다. 그러기에 <<중아합장>>제4에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은 감로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교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나 교만이면 바로 수행자의 죽음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끝내 현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서서 부처님 제자들은 노력과 인내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에 처한 것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지 삼입는설위현·불교학 박사>



◇보성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하신다.



지상 백고좌

보성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밥짓고 청소하는 일도

부처님 공경하듯 하세요

채님 가르침이 바로 삶이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별 것이 없어요. 새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

고 해야 하고 해야 하는 똑같은 날짜를 반복할 뿐입니다. 새해라고 해야 갑자기 모가나는 것도 아니라, 빛이 정체가 떠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스스로의 마음을 뒤아 가겠다는 다짐이 중

요해요. 즉 의식구조가 다시 정립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식구조의 정립에서 중요한 것이 승기에서는 계율이요, 사회에서는 예의범절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계율, 예의범절은 의식을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을 하나를 정한 것이 자연스럽게 계율 정적이 될 것이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는 것이 개인이나 어려운 것 없어요. 어떤 이들은 부

채님의 계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소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림 계 없어요. 현수경에 보면 ‘원아조득선방편(願我早得善方便)’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 말은 부처님의 뜻도 자바리지 않으면서 나에게도 좋은 방편은 반드시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노력은 알고 계를 닦하고 사대를 변명으로 삼는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얽혀 아름답고 건전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가지더라도 부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현수경 하

기자가 본 보성스님

“더 큰소리로 울어야. 더 아픈 쓰러선 울어야” 20년 전쯤 송광사 버스정류장에서 갈바타를 필름과 울고 있는 아이를 아찌지 못해 필름대는 암막에게서 아이를 좀 달래 달래는 부탁을 받고 보성 스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크게 울아라”는 스님의 재촉이 계속되자 아이는 “더 이상 못 울겠다”며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스님은 “더 크게 안 울면 혼난다”고 호통쳤다.

스님은 가르침은 늘 이런 식이다. 문제를 문제의 당사자에게 환원시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 웃음의 웃을 입은 연합,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꼭 떼를 쓰며 우는 아이 같다고 안타까워하셨다. 아집과 집착에 사로잡혀 울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리움을 그치고 진퇴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났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말하기 전에, 승려들부터 달라져야 해.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층 더 스스로를 다듬어야 해. 죄도 밥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야.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잖아?” ‘중노릇 잘 하라’는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송광사 행자 교육, 출현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잘 나타낸다.

스님은 행자교육이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송광사에 가면 스님의 이러한 기본 방침

있었어? 기본부터 달라져야 해. 화강질이 더러우면, 이곳에는 엉덩이 비둘어진 사람이 많아 사·구 하면 곧바로 탈려야 청소를 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숲선수법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야 면 어디 가더라도 불제자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거든” 제재 전 개회대상인 스님은 계율을 바로 세우는 일

문제 일으킨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게

풍자·해학 넘치는 유머로 후학 일깨워

것도 일이지. 코로 숨쉬는 운동은 그만두면 가는 게잖아. 하하하” 운동 삼아 도랑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 스님의 모습은 후학들을 일깨우는 경중이 된다. 바르게 벗어놓지 않은 행자들의 신발에 일일이 물을 부으며 문소 교육 했을 정도니, 언제 어디서 불효행이 떨어질지 모른다. “신발 하나 꼭바로 벗지 못하면 더러운 것을 제대로 할 수

에 불교의 마태를 걸고 있다. 1922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49년 해산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송광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계율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셨다.

송광사 부산 불원인 관음사에서 만난 스님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시작해야”

나만 잘 새겨도 모든 것을 깨안아 주는 허공의 감시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약한 것은 탓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 옳고 그른것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짊어 다쳐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집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또 재가자는 재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듯이 성의껏하는 마음이 중요하니다. 도량에서 비질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원만한 생활이 열립니다.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도 넘쳐나니다. 8%, 이상이 식생활의 문제로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식생활부터 정성스런 마음으로 챙긴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요, 이 게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밥만 들먹여 오는 보살들한테도 외식만 들먹이고 가족들 밥 챙겨주는 데 게으르면 법문을 하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자요 일 잘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 야세에게 부끄

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매순간 이어가는 것이 불법의 요체라고 볼 수 있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 속에는 죽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가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싸임을 벌리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을 해도 참 험악하게 한다고 할 지 모르지만 사는 것이 결국 자수완중 사대로 빨물이 흘러지는 과정임을 명화해야 할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없어요? 내 몸통이든 편안하게 버리고 집착 없이 가는

방법은 없어요? 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데도 즉 의식구조를 새롭게 하는 길이 열립니다.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를 좇아 일으켰던 망령된 생각을 떨치고 그 분별마저 없어진 본래 공(空)한 자리를 알게 되면 마음은 거러잡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거품이 본래 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과 어리움은 물에서 생겨난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고 내가 좋고 싫은 반별을 일으키고 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서 만들 어 놓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때문에 스스로 괴롭고 그 괴로움 때문에 주변 또한 편안할 수가 없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풀이켜서 해결해야겠다는 한 생각을 내는 순간 풀과가 생깁니다. 이때 노력이 중요스런 마음으로 챙긴다면 결점이 풀려 잔여 돌 속에서 헤어나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온갖 허망한 것으로 허망하게 돌아 나고 있는 세상에서 부처님 밥을 만났습니다. 종교 이전 에 마음가짐의 문제를 일깨워 주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노력과 실천을 지금 당장 시

식생활부터 정성들여야

몸·마음 편안해져

내면의 불성 깨울 수 있어

직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글리마라리는 살인자가 부처님께 귀의한 일화가 있습니다. 앙글리마라는 잔혹무도한 살인자로 부처님을 아뢰려 했습다. 일에서 겪고 있는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 앙글리마라가 의뭉했습니다. “멈춰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앙글리마라여, 나는 이렇게 멈춰 서 있다. 너는 어디까지 무수한 생명을 해쳐왔고 나를 해치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멈춰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다. 너도 이제 그만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멈추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이 화두입니다. 앙글리마리는 부처님의 멈춰라 하신 뜻을 알고두고 귀의해 불제자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앙글리마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탓하지 마라. 지금의 앙글리마라만을 바라”는 자비심 넘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웠죠.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과거를 탓하지 않고 오늘을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한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불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부처님을 따르겠다는 간절 한 마음이면 내안에도 부처님의 원만치 못한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밥을 할 때도 적당한 불과 온도,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맛있는 밥이 되듯이 노력을 기울여야 내면의 불성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잘 진행해서 처방했으니 약을 먹고 안 먹 고는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놓은 길을 따라 스스로 깨달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과 실천을 통해 내가 그 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스승 스스로를 다스려 남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앙글리마라에게 하셨던 ‘멈춰라’라는 말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go@buddhania.com



남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성원스님

스님들의 수행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경우가 지나쳐 참선하는 분과 학문하는 분, 포교하는 분들을 갈라놓고 각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치열한 구도의 삶으로 지금의 불교를 이

끈 풀과가 생깁니다. 이때 노력이 중요스런 마음으로 챙긴다면 결점이 풀려 잔여 돌 속에서 헤어나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온갖 허망한 것으로 허망하게 돌아 나고 있는 세상에서 부처님 밥을 만났습니다. 종교 이전 에 마음가짐의 문제를 일깨워 주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노력과 실천을 지금 당장 시

전에 가끔 떠오르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 출가 수행자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가자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하는 것인데 언제나 그저 수행하는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고 한다. 수행을 떠나면 출가자는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 그것이 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림·문병성

근래 불교의 모습이 선(禪)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포교나 학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절집에 서는 포교나 학문이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나 세속화의 지름길로 생각하곤 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랍던 생각이지만 수행자의 모습은 완성된 사람으로써 펼쳐 보이는 삶이리라 보다는 그것을 위해 애고고 정진하는 과정의 삶이라 보고. 순간 순간 부딪혀오는 상황들을 모두 무뎠 참구 하듯이 지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본다.

군승 시절에 만난 여러 스님들은 나처럼 큰 인연 돌이고 좋은 인연들이었다. 성원스님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특한 스님으로 기억된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같이 다녔던 분들의 의견도 역시 그러했는데, 아직도 승복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늘 웃음을 자아냈지만 공부는 참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판단에 스님은 주변이 너무 분명해서 모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이는 너무 맑아서 때로는 정(氣)이 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논리정연 함에

는 결국 많은 분들이 손을 들게 된다. 군승 재직시 군승단에 작은 변화의 흐름이 있었음에 이론적 뒷받침을 도맡아 했고, 명쾌한 결론으로 대중들을 이끌었던 기에도 생생하다.

성원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군승으로 재직했다. 군에 있을때도 언제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했고, 제대 후에는 더 넓은 곳으로 공부하려 가야겠다는 얘기를 영무사처림 하곤 했다. 그 뿐 나도 함께 공부하려 가기로 의기투합 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엔 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 곧 그 사실을 잊어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은 군승 시절 내내 학문에의 열정과 원력을 한번도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대할 무렵 전국의 절을 함께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팔공산 깎바위에 올랐을 때

를 했다. 난 그때만 해도 명성이 스님인데 스님 자리에 가서 기도하던가, 아니면 간단히 충원이나 하자고 했지만 스님은 상관하지 않고 신도들의 특에 서 큰소리로 열렬하며 절을 했다. 옆에서 가만 들 어보니 그 열불소리는 도미성취(跛美成취) 증생구 제(衆生救濟)였다. 난 그저 까맣게 있고 있던 소망을 스님은 군생활 내내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 큰 스님들은 출가자는 먼저 원력을 크게

군승시절에 만난 ‘독특한’ 스님

논리정연…학문에 남다른 열정

세우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는가? 원력을 세우고 살아가는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든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님은 그 해에 하야로 건너고, 거기서 다시 위스콘신주립대로 진학해서 박사과정 까지 마쳤다.

역시 수행자는 공부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큰 원력을 가지고 정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호되게 몰아치면서 중생 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스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성원스님은 그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을 한국 불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인제 양성에 적극적이다. 탐과 절을 세우는 것 만으로는 불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성원 스님과 같은 학문에 열정을 가진 스님들을 제대로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꾸는 일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불사일 것이다.

■ 서울 정혜사 주지

남전스님은 1900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86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군승으로서 군 포교에 애쓰셨고, 현재 서울 정혜사에서 불자들과 초중 하며 살아있는 불교 전하기에 매진하고 있다.